

'일도 구직도 안하는' 청년들 1년새 12% 늘었다

비상계엄·내수 침체 겹쳐 지난달 청년 고용 지표 악화 취업해도 '불완전 고용'...3년 이상 '장기 백수'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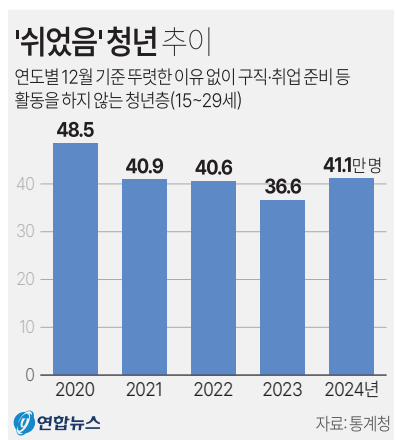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근무 시간이 적어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1천명이었다. 3만6천명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830만6천명에서 805만5천명으로 3.0%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증가 폭이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1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8만5천명, 2021년 40만9천명, 2022년 40만6천명, 2023년 36만6천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다. 연간 지표로 봐도 청년층 쉬었음은 지난해 42만1천명을 기록해 1년 전보



다 2만1천명 늘었다. 2020년(44만8천명) 이후 최대치다.

청년층 실업자 역시 12월 기준 전년보다 2천명 늘어났다. 실업률 또한 2023년 5.5%에서 지난해 5.9%로 0.4%포인트(p) 상승했다.

9만7천명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37.4%(3만6천명)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

후 '휴업'이 점차 사라지고, 경기 회복세도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는 흐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파 등 내수 악재 요인이 겹치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것도 12월 고용 지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더 많이 일하길 원하는 '불완전 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층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는 13만3천명이었다.

9만7천명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37.4%(3만6천명)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

행기인 2020년(65.4%) 이후 첫 증가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임시 또는 단기일자리가 많아 '불완전 취업자'로도 불린다.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단시간 일자리에 뛰어드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장기 백수' 상태인 청년들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9.3%(2만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농협 전남검사국, 하나로마트 식품안전 점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19일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고품질농협을 방문해 하나로마트 식품안전 및 농축수산물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남검사국은 설을 맞아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축수산물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남 농협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소비(유통)기한 임의 연장·변조 ▲상한 식품 진열·판매 ▲식품 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위반 사항을 집중 확인한다.

편지형 전남검사국장은 "농협은 상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하나로마트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명절 선물은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농협-투게더광산재단 '쌀 소비촉진' 협약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부는 19일 "최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쌀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 명절을 맞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우리쌀 간편식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협의 '범국민 쌀 소비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쌀 소비 확대와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며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쌀 소비촉진 홍보활동 및 캠페인 참여 ▲아침밥 먹기 생활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 광산구 내 그룹홈을 대상으로 떡국과 쌀국수로 구성된 우리쌀 간편식 100세트를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호 광주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쌀 간편식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설명절 항공권·택배 '피해주의'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설이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166건, 택배 16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3년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항공권은 13.6%, 택배는 17.1%, 건강식품은 17.0%를 각각 차지한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작년 설 비해 자금 곤란"

중기중앙회 '설 자금' 조사...60% "임시 공휴일에 안 쉬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작년 설에 비해 올해 설에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3.5%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1%였고,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5.5%로 집계됐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

답)으로는 '판매 부진'이 77.6%로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31.3%), '인건비 상승'(19.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2천94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

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9.4%), '금융기관 차입'(30.1%), '결제연기'(20.5%), '사채조달'(4.8%) 등을 꼽았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8.9%, 미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0.4%로 각각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20.7%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2만4천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5%로 조사됐다.

작년 설 상여금의 경우 정액 지급이 60만9천원, 정률 지급이 기본급의 60.3%로 각각 조사됐던 것을 고려하면 상여금이 많이 줄어 들었다.

오는 27일 설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 사 중 6개사(60.6%)가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추문급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3배에 달했다"며 "내수진척, 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으로 제할 수 있는 지원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55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0 16 19 27 37 38 /보너스 13		
1등	4,066,375,179	6개 숫자 일치
2등	60,821,851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496,091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주유소 기름값 14주 연속 상승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이 1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8당 18.0원 상승한 1천706.1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8당 21.8원 상승한 1천556.9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사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